

# 광주 광산구 주민 복지 강화·갈등 해소 '성과'

신청주의 극복 '찾아가는 상담실'  
올해만 실질적 구제 180건 달해  
'마을분쟁지원센터' 해결 사례들  
답은 '현장기록' 최근 출판기념회

광주 광산구의 주민 복지 강화 및 이웃 간 분쟁 해소에서 기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21일 광산구에 따르면 당사자가 직접 문제해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2년부터 '찾아가는 복지 상담실'을 추진해 오고 있다.

복지 상담실을 찾아온 주민들이 자신의 여건 등 상황을 설명하면 광산구는 수혜 가능한 혜택을 물색해서 연결한다.

광산구는 지난해부터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운영 횟수를 월 1~2회로 늘렸고 대상 지역을 2개 동 전역으로 확대했다.

또 평일 낮 시간대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과 청년들을 위해 야간 상담까지 신설해 접근성을 대폭 높였다.

그 결과 정기 운영 체계가 확립된 올해에만 약



광주 광산구가 신청주의 한계 극복을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찾아가는 복지 상담실'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광산구 제공>

500건의 맞춤형 상담이 진행됐고 180건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이뤄졌다.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선 85%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별다른 소득 없이 허로 살던 A(70대)씨는 관련 제도를 전혀 알지 못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지만, 지난 6월 아파트 단지로 찾아온 상담실을 통해 자신이 복지 대상자임

을 알게 됐고 9월부터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으며 생계의 안정을 찾았다.

광산구 관계자는 "찾아가는 복지 상담실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행정이 먼저 나서서 쟁기는 대표적인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 19일 구청 1층 '모두의 쉼

터'에서 '이웃갈등 해결 사례집-광산구 활동가 4인의 생생한 현장기록' 발간 기념 출판공유회를 가졌다.

이번 사례집은 광산구와 광산구마을분쟁해결 지원센터가 그동안 추진해 온 '이웃갈등 조정제도'의 성과를 공유하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가들이 주민들과 함께 갈등을 풀어낸 경험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책의 부제인 '영김을 풀다, 관계를 잇다'는 갈등의 매듭을 풀고 끊어진 이웃 관계를 다시 연결하겠다는 광산구의 의지를 담고 있다.

사례집에는 ▲증간소음 ▲생활 누수 ▲반려동물 ▲증간 흡연 등 주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겪는 17가지의 실제 갈등 상황이 수록됐다.

특히 5년간 이어진 묵은 갈등을 화해로 이끈 중재 과정,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 공동주택 사례, 관리소장과 활동가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그대로 담겼다.

또한 단순한 사례 나열에 그치지 않고 각 사례의 핵심을 요약한 '한 것 삽화'와 '갈등 예방 팁(Tip)'을 더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례집은 광산구 누리집(홈페이지) 전자책(e-book) 게시판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웃 간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를 시도하면 엉킨 실타래도 충분히 풀 수 있다"며 "이번 사례집이 삐딱해진 도심 속에서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다시 꽂아우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옥근기자

## 동구 충장로에 'AI 창의문화복합공간' 들어선다

지상 3층 규모…내년 초 실시설계

4월 준공·9월 개관 목표 사업 추진

광주 동구가 충장로 일원 지역 관광 활성화와 상권 회복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창의문화복합공간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1일 동구에 따르면 AI 기반 창의문화복합공간은 지상 3층 규모로 충장로 5가 일원에 조성되며 ▲K-컬처와 AI를 결합한 체험형 전시관 ▲충장로의 문화 자산과 침대 기술이 융합된 문화 창

유공간 ▲도심 속 휴식과 교류를 위한 열린 커뮤니티 플랫폼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내부 콘텐츠 구축과 AI 기반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예산 19억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포함된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 사업을 통해 충당했다.

동구는 이번 예산 확보를 계기로 내부 콘텐츠 조성 전문업체를 조속히 선정하고 내년 초 실시설계와 공사에 착수해 9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동구는 이 공간을 충장로 상권 침체와 유동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전략적

문화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지역 명장, 청년 창작자, 로컬 브랜드와 협업을 확대해 주민 참여와 지역 상생이 이뤄지는 열린 문화 플랫폼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국비 19억원 확보로 AI 기반 창의문화복합공간 조성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AI 기술과 충장로의 문화 자산을 결합한 콘텐츠를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상생하는 도심 문화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재영기자

남구,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모집

광주 남구가 내년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21일 남구에 따르면 새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지역 공동체 및 공공근로 분야 관련 업무로 상·하반기 2차례 진행한다.

상반기에는 지역 공동체 37개·공공근로 12개 사업을 진행하며 취약계층 주민 84명에게 제공된다.

지역 공동체 분야로는 ▲빛고을 농촌테마공

원 관리 운영 ▲보행 환경정비 ▲재해 예방 사업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 파견 사업 ▲재활용 클린하우스 운영 ▲희망나눔 텃밭 운영 ▲취업상담센터 청년외국어 운영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 등이 예정됐다.

공공근로 사업 분야 일자리는 ▲송암산단 내환경정비 및 사업장 지원 ▲전통시장 환경 정화 사업 ▲공영주차장 운영 지원 ▲도시정원 및 경관녹지 등 환경정비 ▲불법 광고물 정비 등이다.

상반기 모집 기간은 내년 1월 2~8일이며 대상

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중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70% 이하면서 가구 재산이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서 제출은 구청 1층 취업상담센터 창구 혹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하반기에는 공공근로 분야 사업 2개와 일터 9개를 늘려 총 9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참가자 모집은 5월 말로 예정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일자리정책과(06

2-607-2076)에 문의하면 된다.

/서형우기자



## 서구, '함께서구 행복학교' 성장 나눔회

부모·자녀 동반 교육 모델

1년간 500여명 참여 '호응'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함께 행복학교'로 운영됐으며 올해 총 5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성장 나눔회에는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해 행복학교 참여 가족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지난 1년간의 배움과 변화를 되돌아보며 서로의 성장을 공유했다.

(사진)

한 행복학교 참여자는 "아이 교육을 넘어 가족의 삶 전체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교육의 변화를 통해 서구형 미래교육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연상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 6만배송 (기타 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